

용인 역북동 전국 최대 규모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 ‘화제’

[스마트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용인오토랜드’ 공사 본격화]

하종숙 기자 | hjs@ikld.kr

지난 5월 건축허가 완료… 임대예약 시작 15일만에 예약률 60% 넘어 ‘인기’

2017년 11월 총 180개 매매상가 입점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 일익 기대



▲ 용인 역북동에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용인오토랜드’ 조성사업이 본격화, 오는 2017년 11월 총 180개 매매상가가 입점할 예정이다.<사진은 용인오토랜드 조감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역북동에 위치한 ‘용인오토랜드’(자동차 매매 복합단지)가 지난 5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임대 예약을 시작한지 15일 만에 예약률 60%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

착공을 위한 임목, 벌목이 시작되며 예약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그동안 대규모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수원, 인천 등에 조성될 것 이라는 소문과는 다르게 소문만 무성한 채 실제로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착공이 이뤄진 곳은 없기 때문이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실제로 그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용인오토랜드’ 시행사인 (주)테라(대표 서승희)는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에 앞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용인오토랜드’ 사업부지 공사현장은 실제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많은

공헌이 기대되는 것은 용인시 역북동에 공사 중인 ‘용인오토랜드’ 규모가 국내 최대 최고의 규모이기 때문이다.

오는 2017년 11월 총 180개 매매상가 입점할 예정이고 한개 상사 당 기본 전 시 주차가 무려 50대에서 70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매매단지 내 상주 인력만 무려 3,6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가 366만7,000대로, 신차 등록 대수(184만7,000대)의 두 배에 이르며 해마다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용인시의 고민에 흔적을 볼 수 있다.

용인, 수원, 고양은 지리적으로 사통팔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TG와 용인IC, 흥덕IC가 있다. 2017년, 2021년, 2022년에 각각 42번 자동차 전용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삼가IC가 개통 예정이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 동용인JC가 개통될 예정이며 최대 수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용인오토랜드’ 역북동 사업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특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반경 60km 이내 거주자가 무려 2,5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역북동에 위치한 용인오토랜드와 남서울오토허브, 더빙커모터파크는 지리적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맞게 제시된 좋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용인오토랜드’는 MTN방송 김생민의 비즈정보쇼에 소개된 바 있다.

